한마음선원·현대불교, 불교박람회를 사로잡다

한마음선원 '마음굴림' 인기만점
팔찌 등 제작하며 마음 굴리기
예약必 '스님과 차담' 인산인해
현대불교 AI 상담봇 '해심이' 시연
신행부터 연애까지 상담 이어져
"궁금증 해소하고 상담도 척척"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바다마음 팔찌를 만들며 한마음선원 '마음굴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참가자들.



불교박람회 참가자가 현대불교신문 부스에서 AI 상담봇 해심이를 체험하고 있다.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올해도 많은 화제를 선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마음선원이 시그니처 프로그램 '마음굴림'을, 현대불교신문사가 자체 개발한 AI상담봇 '해심(解心)이'를 선보여 관람객들이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해 '마음굴림'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마음굴림'은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인 '한마음'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마음선원 혜권 스님은 "모든 것을 나온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으면 본래 걸림 없는 한마음이 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서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재료로 해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에서 해결해'라고 내면으로 굴리는 것이 한마음에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마음굴림' 프로그램의 골자를 설명했다.

'마음굴림' 프로그램은 전문 봉사자와 함께 해설집을 숙지한 뒤 '바다마음 팔찌'와 '바다마음 컬러링 파우치'를 제작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바다마음 팔찌'의 구성품들을 하나 하나 꿰고, '바다마음 컬러링 파우치'에 패브릭 마카로 채색하며 스스로를 차분하게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이 '무념무상'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반추하고, 자신의 고민들을 관조했다. 마음을 굴려 한마음으로 되돌린 자리에는 자기 자신이 찾은 해법이 남았다.

친구와 함께 부스를 찾은 이수민(28) 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음굴림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부스를 찾았다"며 "팔찌와 파우치를 만드는 동안 잡념을 날릴 수 있어서 좋았다. 스스로의 문제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김민주(31) 씨도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는 것이 일상의 고민이었다. 이 문제로 스트레스도 심했다. 하지만 '마음굴림'을 해보니 내 자신이 집착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마음굴림' 체험 후기들도 스스로의 변화를 찾은 사례들이 많았다. '가족에게 예쁘게 말하고 싶다'고 한 김일지 씨는 "말하기 전에 '바다마음에 굴려서 말하게 해' '한마음에 굴려서 말하게 해'라고 해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마음굴림' 체험과 함께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은 '스님과의 차담'이었다. '스님과의 차담'은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참가자들은 스님과 차 한잔을 나누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선원 '마음굴림' 부스에서는 국제문화원이 발간한 대행 선사 관련 외국어 도서, 불교용품점 '무진향'이 제작한 불교 굿즈, EM 지구사랑 작은실천의 EM제품들도 대중에게 소개됐다.

이와 함께 현대불교신문사(대표 한명우)가 박람회 기간동안 시연한 AI신행상담봇 '해심이'도 화제였다.

'해심이'는 구글의 제미나이 무료버전과 구글 AI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불자 맞춤형 신행 상담은 물론 마음 치유, 명상, 수행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 '현불뉴스(hyunbulnews.com)'에서 상담봇 아이콘을 누르면 별도의 상담창을 통해 제공된다.

현대불교신문 부스를 찾은 참가자들은 신행에 대한 궁금증부터 불교용어·교리, 학업, 연애 등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쏟아냈고, '해심이'는 맞춤형 답변을 내놓았다. '해심이'의 친절하고 상세한 해답에 참가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윤선(31) 씨는 "가수 제니의 노래 '젠(ZEN)'에서 나온 '만트라'라는 불교용어가 궁금해서 '해심이'에게 물었는데 상세하게 답변해줬다. 불교를 설명해주는 AI상담봇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말했다.

연애문제에 대해 상담한 김지연(25) 씨는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답해줘 신기했다"며 "연애상담도 했는데 위로가 되는 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교종단 및 단체 지도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4월 3일 개막식 이후 부스들을 라운딩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 AI 상담봇 '해심이'를 살펴보고 격려했다. 박람회 기간에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이 현대불교신문 부스를 찾아 '해심이'를 체험했다.

마가 스님은 "불교계 언론 중 AI신행상담봇을 개발한 곳은 현대불교신문이 처음"이라며 "현대불교신문이 새로운 신행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모습이 놀랍고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한편, 현대불교신문은 향후 AI기술과 불교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불교 신행 문화의 대중화와 실생활 속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이모저모

관세음보살 인연 팔찌 인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스는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인연 팔찌'를 나눠주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첫날 준비한 700개가 모두 소진된 데 이어, 다음날도 600개가 빠르게 동이 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스님들이 직접 만들 연냉면, 패션푸르츠청, 곤약젤리 등 건강한 먹거리는 물론 현장에서 구워주는 와플도 눈길을 끌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불교박람회는 숨어 있는 불자를 발견하고, 불교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축제"라며 "선명상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를 친숙하게 접할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구니회 문화포교부장 대원 스님은 "올해 젊은 관람객들은 지난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비구니회의 활동에 궁금증을 드러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대행 선사 가르침, 원더풀"



한마음선원 부스에서 관람객들에게 '마음굴림' 프로그램을 홍보한 푸른 눈의 불자가 캘리 콘린(Kelly Conlin·사진 왼쪽) 씨. 한국 법명은 '하연'이다. 콘린 씨는 미국 앤아버 선련사 주지 하주 스님의 제자로, 지난 2022년 열린 대행선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로 참여한 하주 스님과 함께 방한하며 한마음선원과 인연을 맺었다. 학술대회 이후 콘린 씨는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영문판을 접하게 됐고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매료돼 한국을 다시 찾았다.

한마음선원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콘린 씨는 박람회 기간 중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봉사를 마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콘린 씨는 한국어를 배워 본격적으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알아갈 계획이다. 콘린 씨는 "대행 선사는 이 시대의 귀한 선지식이다. 한국에 머물려 귀한 법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중일 기자

도자부처 모시고 불사 동참



2025 서울국제박람회에서는 도자부처님이 계시는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범혜 스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더붐비전센터' 조성불사를 홍보하는 것이 골자였다. 거제시 제석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더붐비전센터'는 기존 사찰 건축 양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전의 우주관과 사상 등에 입각해 건축 설계가 이뤄졌고, 불사를 위한 원불을 모연 중이다. 원불도 일반적인 부처님과 다르다. 도자 조형 작가인 이세훈 동아대 교수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초벌구이된 도자부처님에 자신이 채색한 뒤 유약을 바르고 재벌해 하나의 작품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부처님은 거제에 지어질 '더붐비전센터'에 봉안된다.

범혜 스님은 "더붐비전센터는 번뇌 망상을 비우고 내일을 설계하자는 의미를 가졌다"며 "새로운 형식의 도량에 많은 불자들이 수희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